

‘안전성 논란’ 계륵된 광주 지산IC 전면 재조사 착수

광주시, 위험도 평가 용역업체·심사 평가위원 공모

“10월 초 용역 착수·늦어도 내년 2월 내 결과 도출”

광주시가 안전성 문제로 완공되자마자 폐쇄된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진출로 사업 전 반을 재조사 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위험도 평가 용역업체 제안서를 평가할 후보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모집분야와 대상은 교통·도로·정보통신 분야 관련 전문가이다. 모집인원은 평가위원수의 3배수인 21명 이상이다.

자격요건은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위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은 위험도 평가 용역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역할이다.

광주시는 또 오는 6일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위험도 평가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공모한다. 이어 오는 20일이나 21일 선정 업체로부터 용역 제안서를 받아 앞서 모집한 평가위원들에게 심사를 맡긴다. 위원회 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용역업체를 통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도로과가 아닌 기획조정실 평가데이터담당관을 용역 수행 담당부서로 지정했다.

평가용역은 일반경쟁 방식이며, 용역비는 1억 원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다. 용역 결과는 늦어도 내년 2월 내 도출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교통사고 통계데이터 분석·기존 연구용역 등의 자료를 활용, 모형을 개발한 위험성 예측·지형과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가상 현실(VR) 3D맵으로 구축, 시나리오별 가상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전자 주행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지산IC의 위험도를 예측한다.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 보고서는 지산IC의 경우 우측 진출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어긋난 데다 제2순환도로 내 다른 연결차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에도 반해 돌발적인 차로 변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규정상 터널에서 연결로까지 이격거리는 680m이지만, 지산IC는 지형여건상 좌우차로가 각각 5m·19m에 불과해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거(視距)거리가 너무 짧고, 이로 인한 본선 차량들의 대기문제와 속도 제한에 따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훼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전 문제로 개통이 최종 백지화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77억 원의 예산(설계비 6억여 원 포함)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데 대한 책임문제



폐쇄 결정된 광주 순환도로 지산IC. (사진 = 광주시 제공)

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산IC는 양방향 0.67km·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다. 당초 우측 방향으로 계획했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분진·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주민과 전문가·경찰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 방향 진출로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한 과학적 분석으로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에 기반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비기자

‘힌남노 영향’ 광주·전남 일부학교 수학여행·체험학습 취소

광주 6개 교·전남 32개 교...‘직접영향’ 전남 일부학교 원격수업·재량휴업 전환도

제주도 등지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학교가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북상에 따라 ‘취소’했다.

5일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태풍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상황관리전담본부’를 구성하고 수학여행·체험학습 진행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여 모두 취소·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지역은 이날부터 8일까지 숙박형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는 초등학교 포함 6개교로 파악됐다.

광주자연과학고는 수학여행을 7일과 8일로 연기했으며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동신여고·비야고·송원여상은 취소했다.

전남 순천과 고흥지역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을 계획했던 송정중앙초와 문흥초 등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교육청은 태풍이 광주지역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단축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전남지역은 당일 체험학습을 계획한 유치원 1개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32개교가 수학여행·체험 학습을 취소했다.

직접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전남지역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재량휴업’으로 전환했다. 이날부터 유·초·중·고 12개 학교가 원격수업 전환했으며 13개 학교가 휴업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숙박형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교육청도 태풍 피해



전남 여수시 국동항이 4일 초강력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경박한 소형 어선과 낚시어선 1만여척으로 가득차 있다.

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안가 지역 학교는 태풍의 직접 피해가 예상돼 원격수업, 휴업 등 전환을 권고했다”고 이야기했다.

김재현기자

광주경찰, 올 상반기 조직폭력배 72명 검거 ‘성과’

11명 구속...지난해보다 검거자 1.8배 이상 증가

광주경찰이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72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일동안 ‘상반기 조직폭력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 72명을 붙잡았으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 당시 39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1.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거자 연령 별로는 20대가 57명으로 79.2%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9명(12.5%), 40대 4명(5.6%), 10대 2명(2.7%) 순이었다.

광주경찰은 경미한 시비가 조직간 집단 폭행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와 회합 등 접보를 입수하자마자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미리 폭력조직에 엄중 경고하고 조직간 충돌 방지를 위해 모임 장소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예방적 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과는 별개로 실제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발빠른 첩보 입수를 통

해 집단 싸움·보복 폭행을 주고받은 2개 폭력조직 구성원 37명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A조직 소속 조폭 5명은 올해 1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 변화가에서 ‘나이가 어린데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게 한다’며 시비를 거는 B조직 소속 2명을 마구 때렸다. 이후 B조직은 앙심을 품고 조직 추종세력 3명을 불러 모아 A조직 구성원 1명을 복구 용봉동 변화가로 불러내 보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조직 구성원 32명은 ‘복수를 하겠다’며 흉기 등을 챙겨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했으나, 첩보를 사전 입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달아났다.

광주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국 곳곳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B조직 각 5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검거돼 모두 구속됐다. 이어 A조직 구성원 27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 구성 활동 혐의로 입건, 주범 2명은 구속됐다. 정승호기자

중성한 한가위! 전남드래곤즈와 함께!

모여라! JEONNAM DRAGONS FAMILY

이번 추석, 드래곤 단전에서 만나요!

기념품 : 플라나 캐릭터 스포츠양말, 클래퍼
이벤트 : 선수 팬 사인회 및 포토타임
경품 : 디오션리조트 숙박권, 클럽 유니폼, 클럽웨어, 사인볼

전남드래곤즈 VS 광주FC

22. 09. 11 SUN 13:30

광양축구전용구장

K LEAGUE 2 2022

THE WINNING STRONGHOLD